

살고싶은도시 함께만드는인천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2월 3일(수) 총 4매		
담당 부서	스마트도시 담당관	담당자	• ICT인프라팀장 신용식 ☎440-8931 • 담당자 신은선 ☎440-8933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<인천형 뉴딜,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>
인천시, 스마트도시 기술로 통합사회안전망 구축
 - 시민이 직접 선정한 ‘10대 인천형 뉴딜 과제’ -
 - 1만6천개 CCTV 연계, 경찰·소방서 등과 실시간 감시 및 대응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’의 일환으로,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.
-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진 인천시 전역의 약 16,000개 CCTV를 연계 통합해 시민의 안전, 교통, 시설 등을 24시간 감지·분석하고 위기 상황 시 시와 경찰, 소방 등에 실시간 상황 공유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안전망이다.
-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‘인천형 뉴딜 과제’ 중 하나이기도 하며, 특히 시민시장이 직접 뽑은 ‘10대 인천형 뉴딜 과제’ 중 하나인 핵심 사업이다.

- 시는 오는 6월까지 시와 10개 군·구의 CCTV관제센터를 연계 통합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완료하고, 112·119 종합상황실 및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▲경찰서와 소방서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재난 현장, 범죄 현장, 교통 상황 등의 CCTV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긴급 상황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.
- 또한 ▲법무부와 연계하여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이상징후 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.
- 이밖에도 ▲어린이·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▲전통시장 화재 대응 ▲수배 및 체납차량 검색 지원 서비스가 구현된다.
- 시는 올해를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기로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며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, 미추홀구, 계양구의 CCTV영상을 경찰·소방에 공유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.
- 이어 시민과 함께 인천시 고유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·제공하고,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깊숙이 파고들어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·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.

-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“스마트도시 기술 기반의 안전망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이 강화되고,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도 해소될 것”이라며 “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하고, 앞으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교통·복지·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체계



<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성도>

